

전남도내 학교 내진 보강률 23% 불과

병원·철도·댐도 38% 그쳐 강진 발생엔 건물붕괴 우려 예산 없어 내진시설 못갖춰

전남도내 학교건물과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률이 20~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도가 지난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

에 대한 내진보강률을 조사한 결과 전남도내 학교와 병원, 철도, 고속도로, 댐, 터널 등 공공시설물 5490개 중 내진시설을 갖춘 곳은 2110개로, 내진 보강률은 38%를 보였다.

학교시설은 1684동 중 389동(23%)만 내진시설이 보강돼 강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

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화했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다.

법 도입 전에 세워진 공공시설물은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설계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이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관할 지자체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공공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공공 시설물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내진 확보율이 낮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해 내진보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태를 전수 조사해 오는 2020년까지 기한인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기념재단 오월 음원 발표회 5·18기념재단은 28일 오후 4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송년음악회를 열고 80년대 대학생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됐던 오월 노래와 민중가요의 음원을 발표했다. 재단은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친구?' 등 오월 노래 14곡을 담은 음반도 다음달 발매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240억 투입 어촌체험마을 인기 시들

시설·프로그램 단조롭고 교통 불편 방문객 급감

15년간 약 24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전남지역 어촌체험마을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초기 조성비 외에 매년 인건비, 추가 시설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을 정점으로 매년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외부 요인이 있지만, 단조로운 시설 및 프로그램, 과다 선정, 교통 및 편의시설 미흡 등 내부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1개 시·군 29곳의 어촌마을에 국비 124억원, 시·군비 104억원, 자부담 10억원 등 238억원이 투입됐다. 도시와 어촌 간 교류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체험 기반 및 소득시설, 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당 5억~10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어촌체험마을은 여수 4곳, 고흥 2곳, 보성 2곳, 장흥 3곳, 강진 3곳, 해남 3곳, 무안 1곳, 함평 1곳, 완도

2곳, 진도 3곳, 신안 4곳 등 모두 28곳이다. 완도 1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이와는 별도로 올해 11개 시·군 25개 마을 사무장 인건비 3억46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함평 석두마을에 대해 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공공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정비해줬다.

그러나 지난 2013년 65만8000명(소득 57억2000만원)에 달했던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지난해 46만2000명(33억2700만원)로 급감했으며, 올해도 지난 10월 말까지 42만7000명(38억4300만원)이 찾았을 뿐이다.

전남도는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전남 이외에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어촌체험마을을 79곳과 차별화하지 못한데다 갈수록 그 수는 증가하지만 지역 어촌체험마을의 '매력 요인'은 정체돼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

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주로 특산물 판매(66%), 체험(15%), 민박(12%)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소득 패턴과 특산물이 타지역 어촌체험마을과 큰 차이가 없다는데 체험프로그램 역시 볼~가을 조개캐기, 개막이 등 개별체험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편의시설이 부족해 재방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억원을 들여 주차장, 샤워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 지원, 워크숍 개최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흥 안남마을의 경우 올해 전국 평가에서 대상인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지역 어촌체험마을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외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시민들이 더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다음달 11일 인사청문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1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6일 각각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관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다음달 11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여야 합의로 다음날인 12일에도 청문회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12일 결정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6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혁신산단 8년만에 준공

2980억 투입... 전기장비·금속 등 입주 예정

나주혁신산업단지(이하 나주혁신산단)가 착공 8년 만인 28일 준공됐다. 나주시는 나주혁신산단(이하 나주혁신산단)은 단지 조성 마무리와 함께 분양과 기업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08년 1월 첫 삽을 뜬 이후 명칭과 사업방식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8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전체 부지 178만 9000㎡에 개발면적은 122만㎡이며 모두 2980억원이 투입됐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62만7000원이다.

이 단지에는 에너지밸리 주력업종인 전기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금속, 기계, 장비 등을 비롯해 식품, 물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산단시 배후 산단으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국도 1호선을 비롯해 13호선, 23호선, 혁신도시 전용도로 등 사통팔달 잘 갖춰진 도로 기반시설 등도 장점이다. KTX 나주역과는 10분,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IC까지는 15분 이내 거리에 있다.

나주시와 혁신산단(주)은 단지 조성 마무리와 함께 분양과 기업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혁신산단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과 정책자금 융자혜택이 있다.

투자 협약한 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주시는 20여만㎡ 규모 혁신산단 1단지(3.3㎡당 62만7000원)를 유치되면 연관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분양이 완료되면 3천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6천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양 실적은 9개 업체에 5%, 6만6000㎡에 불과해 분양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장기불황으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분양 용지를 인수해야 하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나주=정현철기자 chung@

“나주혁신산단은 에너지밸리 배후 산단

내년말까지 50% 이상 분양 이뤄낼 것”

KB투자증권 김성현 전무

“나주혁신산단은 한전 등이 조성하는 빛가람에너지밸리 배후 산단으로 꼽히는데, 관련 업체들은 혁신산단 이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업종료 시기는 2018년이지만 내년 말까지 최소 50% 이상이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주혁신산단 2차 금융조달사인 KB투자증권 IB총괄 김성현 전무는 28일 나주혁신산단 준공식에서 향후 사업계획 및 전망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전무는 “(KB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6월 나주혁신산단(주)로부터 2차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날 8년 만에 ‘준공’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나주시가 진행한) 2차 사업자 재공모 과정에서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도 많았지만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008년 혁신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 1차 사업자와 사업협약을 했으나 1차 사업자와 금융조달사인 모 증권사가 행정자치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사업 심사 누락 등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1차 사업자와의 협약은 해지됐고 2차 사업자를 재공모했다.

김 전무는 특히 “2차 사업자로 선정된 뒤 나주시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6.5%의 조달금리를 3.5%로 낮추면서 금융비용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B투자증권은 SOC 및 공공기관 자금조달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 혁신산단 이외에도 지난 9월 광주진공산단에 2800억원 조달했고 내년엔 광주평동산단 3차에 2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목표 해양케이블 사업 등 지역우량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수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